

고시요시치 석비

이 소박한 비석은 역사 깊은 구마가와주쿠라는 역참마을 시몬초 입구 근처에 설치되어 있으며, 이 지역에서 효행에 귀감이 된 요시치라는 남자를 기리는 것입니다.

요시치는 약 300년 전에 아내와 함께 구마가와주쿠에 살고 있었습니다. 이들 부부는 아주 가난했는데 자신들은 굶어도 고령의 부모님께는 진수성찬을 올리며 효도를 다했습니다. 이 부부의 부모님에 대한 경의와 헌신 이야기를 들은 오바마 번 영주는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 가족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쌀을 주었습니다.

비석 근처에는 전시와 와카사 문화에 관한 강의, 체험교실 등을 위한 공간을 갖춘 휴게시설이 있으며, 이 이야기로 대표되는 부모와 자식의 유대를 기려 이 시설에는 요시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